

자료제공 : 기업금융연구원(www.fund.re.kr)

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술개발 500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에 발전·성장 가능성이 큰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지원에 50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 R&D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간 및 한도를 1년, 1억원, 2년 3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기술개발사업의 신청부터 평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절차 간소화 및 각종 기술개발 정보획득 등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략과제' 기술개발사업은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품목 등의 정부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44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과제는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전략산업 육성에 중소기업 참여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이 조사·분석하여 2년이내에 개발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선정하게 된다. 미래 기술개발분야는 신성장동력산업,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소재 부품 및 성장유망품목 등 130개 과제이며, 우수 특허과제는 PM(특허기술분석도, Patent Map) 연관기술 및 특허 수요조사과제 등 249개이다. 산·학연계 지역특화사업과제는 공고된 지역별 특화산업과 관련하고, 중기청이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우수과제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2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개발부서가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우수 특허과제에 한함)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자료 : 중소기업청, 2004. 12. 30)

해외무역전시회 100억원 지원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8일 2005년 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을 선정·발표하고 올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자부는 올해 해외마케팅 지원예산(164억원, 국회심의중) 중 110억원을 투입해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116개 사업(KOTRA 자체 주관사업 66개 포함, 총 182개 사업), 각 업종단체 주최 해외전시회 8개 사업, 해외전시회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전시회기반사업' 1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흥 유망시장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60개 사업에 43억원(산자부+KOTRA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며, 중국시장에의 편중 해소를 위해 중국은 올해 49개에서 올해에는 46

NEWS

개로 축소되고 러시아는 지난 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어나며, 지난해 전무했던 인도와 브라질도 올해에는 각각 3개, 1개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지난 8월 실시된 업계 수요조사와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10월 신청접수에 따라 대상 전시회의 시장성 등이 종합 고려돼 선정됐다.

산자부 염명천 시장개척과장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금지되는 WTO 체제 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 '99년부터 본격 지원하기 시작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2003년(계약액 기준)의 경우 정부지원액 대비 164(단체참가)~348(개별참가)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 : 산자부 시장개척과 김연수사무관 02-2110-5322 (yskim02@mocie.go.kr)

(자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04. 12. 9)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정책자금 지원 - 산업자원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반자금의 30%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지원키로 하고 산업기반자금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양성·품질향상·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를 업체당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하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은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며 금리는 4.9~6% 수준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에는 기업은행도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대규모사업 등 정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은행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협력 상대방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협기술금융(주)을 통해 대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은 기협기술금융(주)을 통해 자금의 상환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영달 경영지원팀장 02-769-6871

기협기술금융(주) 영업부 김병진 차장 02-3453-6211 / 기업은행 이경렬 기업고객부장 02-729-7612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11. 15)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대책 시행 -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실물경기의 부진 및 결산기를 앞둔 은행권의 대출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 4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월 3일 밝혔다.

산은은 먼저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래하는 1,700여개 중소기업 대출금 1조 8천억원을 해당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기한연장은 운영자금 연장시 원금 일부상환의 면제, 시설자금 상환계획의 재조정이 가능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원금상환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산은은 일반자금 1조 8천억원을 포함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원, 투자펀드 2천억원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하여는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 '지방소재 및 유망중소기업에 우대운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한도초과가 인정되는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과 벤처기업, 핵심부품·소재기업 등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특별투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산은은 말했다. 산은은 금리면에서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0.3%p 우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10억원이하의 소액여신에 대해 일괄적으로 0.3%p 추가인하했으며, 긴급운영자금은 0.2%p, 우대운영자금은 0.5%p를 인하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자금종류에 따라 최대 1.1%p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구조 및 유동성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시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은은 또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기한연장은 영업점 약식심사를 거쳐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경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운영자금, 출자전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기한연장 등을 의결토록 했으며,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을 상설 가동해 위원회와 영업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 김종배 이사는 "1,8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은 살려야 할 기업을 선별해 이들 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 그 특징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비오는 날 우산 빼기식'의 무차별·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옥석을 가려 정상화 가능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생전략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김용수 차장(☎787-6128) 강기원 과장(6125), 임채성 과장(6123)

(자료 : 산업은행, 2004. 11. 3)

NEWS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부천시

부천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분기별 용자지원 계획에 의거 이번 지원 총규모로는 90억원이며 용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내로 3년(1년, 2년, 3년:선택)의 용자기간으로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2.1%를 적용하여 용자해 준다고 부천시는 밝혔다.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와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중소기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2종근린생활' 인 기업과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로서 사업실적이 1년이상인 기업으로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이다.

상담 및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부천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320-2333)

(자료 : 부천시, 2004. 11. 11)

위탁보증 13개 은행으로 확대 시행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10월 29일자로 13개 은행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 위탁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증 확대조치'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위탁계약' 을 체결한 은행이 수탁자의 지위로서 신보를 대신하여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으로 지금까지는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여 왔다. 신보는 이번에 우리은행 등 7개 은행과 신규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3개 은행에서 위탁보증을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탁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영세소기업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보는 이와 함께 위탁보증을 취급하던 기존 6개 은행과는 위탁보증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Scoring System을 통해 신보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참고로 은행이 보증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탁보증 심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은행의 대출 및 보증 가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된다. 신보는 또 은행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탁보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즉 위탁보증 운용성과가 양호한 수탁은행에 대하여는 부분보증비율과 총액취급한도(수탁은행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 총한도)를 우대하는 한편, 부분보증제도에 의해 수탁은행이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부분(20%)에 대하여 반드시 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위탁계약을 강화함으로써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전재훈과장(02-710-4167)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4. 11. 1)